

‘오시겨’ 반말 ‘어서 오너라’ 로 오해, ‘어서 ‘어서 오십시오’ 뜻 존대어

요즘은 매체를 통해 인천 및 경기 방언인 ‘쩨다(대단하다·기막히다)’ 나 경북 방언인 ‘진상(밧상·꼴불견)’ 과 같은 말이 대중어로 자리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방언이 특정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쓰이는 까닭에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심지어 외지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천 강화에서 쓰는 ‘어서 오시겨’ 와 경남 남해에서 쓰는 ‘어서 오시다’ 입니다.

외지 사람이 강화지역 방언 화자에게 “어서 오시겨” 하는 인사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강화지역 사람이 자신을 깔보고 반말로 대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경남 남해 사람이 손님에게 “어서 오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역시 ‘어서 오너라’ 처럼 들리지만 실은 ‘어서 오십시오’ 하는 존대어입니다.

이 밖에도 전남·전북과 경남의 일부, 제주지역에서 쓰는 ‘나가’ 란 방언이 있는데, 이 말 역시 외지 사람들이 듣고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겠다” “내가 먹던 밥” 할 때의 그 ‘내가’ 에 해당하는 방언인데, 잘못하면 ‘밖으로 나가’ 라는 반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인천에는 강화 지역의 ‘어서 오시겨’ 외에도 독특한 방언이 있습니다. 인천뿐 아니라 일부 중부 지방에서도 쓰이는 ‘불르다’ ‘달르다’ 등이 그것입니다. 이는 ‘부르다’ ‘다르다’ 에 ‘ㄹ’ 음이 덧붙은 형태입니다.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사 아나운서들도 이런 방언을 쓰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아나운서가 ‘불르다’ 라 해도 ‘부르다’ 로, ‘달르다’ 라 해도 ‘다르다’ 로 찰떡같이 알아듣고 넘깁니다. 아나운서라면 방송중에는 정확한 표준어로 말한다고 믿기 때문인데, 실은 이들도 알게 모르게 지역 방언을 쓰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필자가 방송언어 속의 방언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예가 많았습니다. <가요 무대>의 터줏대감 김동건 아나운서는 ‘노래를 부르다’를 ‘노래를 불르다’로, <6시 내고향>에서 푸근한 입담을 자랑하는 박용호 아나운서는 ‘서로 다르다’를 ‘서로 달르다’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아나운서들이 ‘노래를 불르고 오신 적이’ ‘모양이 서로 달르네요’ ‘달르게 느껴지네요’ 등으로 말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지역 방언을 쓴 것일 터이고, 이런 점이 귀 밝은 시청자에게는 잔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1 ‘어서 오시겨’ 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어서 오시겨.’ 는 어떤 의미의 방언인가요?

2) 우리지역에서는 ‘어서 오시겨’ 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써 봅시다.



2 ‘어서 오시겨’ 를 다른 이름으로 붙여 준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3 ‘어서 오시겨’ 가 사용된 짧은 연극을 만들어 봅시다.